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3>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 사실을 알고

<선가귀감>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을 요점만 드러내고 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중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세상이 있는데, 그 부처님 세상은 중생의 고통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다.

그 세상에 넘쳐흐르는 자비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근기에 맞추어서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비유하자면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와도 같다. 바람이 불어서 출렁이는 물결이 일어나면 그 바닷물은 여러 가지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습은 바뀌었으나 파도는 여전히 바닷물로서 그 성분이 바뀌는 법이 없다. 변하지 않는 물의 성분을 불변(不變)이라고 한다면,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수연(隨緣)의 뜻이다.

부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이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뜻이다. 중생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성품이 인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이 수연의 뜻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본바탕 성품이 불변이고 그 바탕이 인연 따라 달리 나타나는 모습이 수연의 뜻이다.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부처님이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고 모든 공부를 끝내는 사람을 우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만 하다면, 먼저 '부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부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하고 차츰차츰 닦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해오점수(解悟漸修)라고 한다. <선가귀감>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故 學者 先以如實言教 委辨不變隨緣二義 是自心之性相 頓悟漸修兩門 是自行之始終 然後 放下教義 但將自心 現前一念 參詳禪旨則 必有所得 所謂出身活路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자체가 부처님 성품이고 부처님 세상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변하지 않는 불변(不變)과 인연에 따르는 수연(隨緣)의 뜻이 자기 마음에 있는 본바탕 성품과 드러나는 모습이며, 단번에 깨닫는 돈오(頓悟)와 차츰차츰 닦아 가는 점수(漸修)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교(敎)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한 생각으로 선(禪)의 근본 뜻을 자세히 참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으니, 이것이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길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뛰어난 근기로써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구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교(敎)를 공부해야 할 어중간한 사람들은 함부로 공부의 차례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불변(不變)과 수연(隨緣),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는 앞뒤 또는 차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교(敎)의 뜻이다.

선(禪)에서 말하는 법은 한 생각 속에 불변과 수연, 본바탕 성품과 형상, 그 바탕과 쓰임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불변이 수연이 되고 그 바탕이 쓰임새가 되어,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고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다. 파도라도 바닷물을 떠난 것이 아니고, 모습이 파도라도 그 실체는 파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큰스님들은 법에 근거하여 말을 떠나서, 바로 한 생각을 가리켜서 참성품을 보고 부처님이 되게 한다. 교(敎)의 뜻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시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고 그대로 부처님 세상이다'라는 믿음이다.

<선가귀감>에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이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불변과 수연의 뜻을 확실히 안다면 공부하는 근본을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참선 공부는 그런 뒤에라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끝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생사(生死)의 바다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우리들의 업이 두텁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서 순수하고 빛나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明歷歷時 雲藏深谷 深密密處 日照晴空
모든 것이 밝고 밝아 분명할 때에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고
깊고 깊어 그윽하고 고요한 곳에
푸른 하늘 높은 태양 찬란한 광명.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울력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잘 아는 스님 절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지요. 따뜻한 방구들이 어찌나 좋았던지, 꼼지락하기도 싫었지요. 그런데 수시로 목탁 소리가 절집을 울렸어요. 대중들이 모두 모여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였죠. 인상을 찡그리고 문을 나와 물었어요. '무엇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울력'이라 하더군요. 울력이라?

울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운력(運力)'이라고도 하는데 운력이 음변화를 일으켜 울력이 됐지요. 대개 하절기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절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동절기에는 김장 등 겨울나기 준비를 하거나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지요.

울력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집의 일손과 할 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대중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스님이든 신도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참해야 하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빠질 수 없지요. 그럼 울력을 왜 할까요? 울력은 협동정신의 모델입니다. 특히 홀로 수행해 깨달으려는 독각(獨覺)을 경계하려는 의미가 큽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4강 <금강경> 제 4장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이란 제목은 "완전한 행동은 토대가 없이 행해진다"는 뜻이다. 보살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늘 주고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불순한 보시로 얻는 복덕은 제한적이거나 해롭다. 지금 붓다는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다.

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 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但應如所敎住.

언해

"또 버거(*다음) 수보리야! 보살이 法에 반드시 住한 곳 없이 하여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色)에 주(住)치 아니한 보시와, 성향미촉법(聲香味觸法)에 주(住)치 아니한 보시니. 수보리야! 보살이 반드시 이같이 보시하고, 상(相)에 주(住)치 아니할지니. 어찌어뇨? 만약 보살이 상에 주치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사량(思量)하지(*헤아리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동방 허공을 어루(*가히) 사량하랴 못 하랴?" "아니이다, 세존하!" "수보리야! 남서북방(南西北方)과 사유상하(四維上下) 허공을 어루 사량하랴 못 하랴?" "아니이다, 세존하!" "수보리야! 보살의 주상(住相)없는 보시ㅅ복덕도 또 이 같아서 사량 못 하리니.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가르침같이 주(住)할지니라."

번역

"또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토대(住)'가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다. 이를테면, 형체에 토대를 두지 않은 보시와, 소리, 냄새, 맛, 접촉, 관념에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가 그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렇게 보시해야지,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러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헤일 수 없이 무한할 것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그럼 동서남북과 그 사이 사방, 그리고 상하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토대 없는 보시를 통해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단지 이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유지해야한다."

무주(無住), 토대가 없는 보시

'마음의 토대(住)'란 대체 무엇인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 <프리티 우먼>이란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줄리아 로버츠는 길거리 여인의 통상 복장으로 고급 의상실을 들렀다가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물러나야 했다. 의상실의 점원으로서야 당연하다. 누가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한 눈에 파악하지 않고서야 좋은 점원이 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목적, 혹은 동기, 즉 '물건을 많이 팔아 이문을 남기겠다는 것'이, 점원이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다. 거꾸로 다른 사람의 행동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근저에 있는 토대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는가."

마찬가지로 남에게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서비스로 하여 돌아올 보답이나 반대급부를 예상한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계산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네 삶은 그 토대 위의 상호 교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예를 들면, 우리네 일상의 교제가 '직업'과 사업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도 그렇다.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또 한때 친했던 사람들도 직접 '일'에 관련되지 않으면 조금씩 멀어진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가족의 해체도, 그것이 보장하고 있던 이해관계의 끈이 점차 유명무실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면 지나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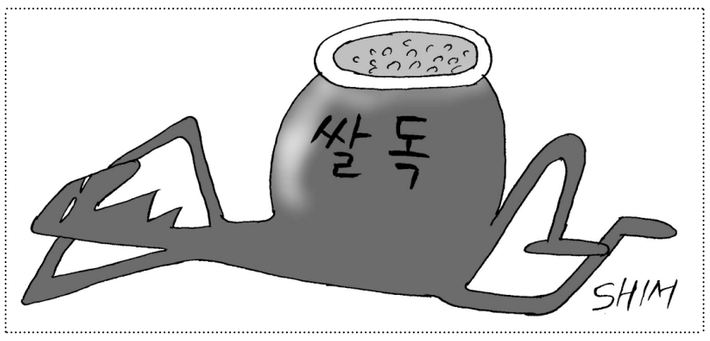
어머님은 언제나 "세상에 공짜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도 하셨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다. 고을의 원이 선비들을 대접한다기에 남루한 행색으로 나섰다가 문전 박대를 당했다. 그는 돌아와 좌악 빼 입고 다시 갔더니 한상 거나하게 차려주었다. 그러자 선비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고, 옷에다 들이부었다고 한다. 입성이 번듯해야 대접받는다. 입구에 선 자는 행색이 분명한 사람을 대접해야 나중에 무슨 혜택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산 없이 주고받는 일은…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태도가 보다 고차원의 전략(?)일수도 있다. 이익을 빠듯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삶에서 자주 경험한다. 비상한 이득은 눈앞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었을 때 온다. 또한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이익에 너무 이기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상사에게 대하는 바와 부하에게 대하는 바가 너무 달라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돌리기 마련이다. 계산은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급할수록 복을 까먹기 쉽다. "장사는 긴 목"이라지 않던가.

보살의 삼륜청정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공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보살에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다. 사회의 미덕은 이런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학창시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거나,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은혜를 자신도 모르는 어느 어려운 학생을 위해 베푼다. 보시는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름답다.' 법정 스님은 언젠가 산 속의 토굴 생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겨울 한 철 나려고 들어가 보면, 쌀독에 쌀이 그득한 것이다. 그는 염치없이 그것을 공양한 다음, 날이 풀려 내려올 때, 그 쌀독을 다시 채워 놓고 내려온다고 했다.

생각해보라. 우리의 주고받음은 엄격하게 경계 지을 수 없다. 작은 도움들, 협력들, 배려들은 계산할 수 없고, 특히나 우리네 삶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 가령 하늘과 땅 등이 가장 크게 간여한다. 또 그것을 따지지 않는 문명일수록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 가령 반찬마다 값을 매기고, '하나 더'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식보다, 밑반찬은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흐뭇해하는 한국식이 더 정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국수주의적 자화자찬일까.

위의 경우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계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보살의 보시는 조건 없는 베풂이다. 그것은 돌아올 반대급부를 의식하지 않는 진정 순수한 활동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베푸는지를 모른다.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갚을 사람을 장부에 적어놓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살피는 것은 외상에 올릴 액수를 기입하는 일이니까…. 누구에게 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는지 모른다면, 대체 '누가' 주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 삼륜청정(三輪淸淨)의 순수한 행동으로, 보디사바하, 무아(無我)가 완성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삼륜청정, 세상에 공짜도 있다